

중국어 불손 표현 연구*

오 현 주**

<目次>

- | | |
|-----------------|----------------|
| I. 서론 | 2. 불손 표현 형식 |
|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3. 문화차이와 불손 표현 |
| III. 불손 표현 | IV. 결론 |
| 1. 불손 의미 | |

I. 서론

의사소통에 있어 때로는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보다 발화자의 태도나 방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공손한 또는 불손한 언어 사용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한 의사소통에서부터 목적 지향적인 전략적 대화 상황에 이르기까지 공손한 언어표현은 상호간의 조화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반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불손한 언어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나아가 상호간의 충돌과 부조화를 야기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써 원만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종종 대화의 실패로 연결되기도 한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1590)

** 울산대학교 강사

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전략적 경우 외에 목표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공손하지 못한 불손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국어 학습자의 경우 중국어의 불손표현을 알지 못한다면 심각한 화용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화용적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손표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담화분석을 통해 중국어의 불손(不禮貌) 실현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어 공손 및 불손표현에 관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중국어 불손표현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불손의 언어실현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여 중국어의 불손표현 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중국어 불손표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동안 공손 표현에 비해 불손 표현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¹⁾ 중국어 공손표현과 관련하여 어휘, 통사, 화용 등 다각도의 논의가 이루어진 점과 비교하면 중국어 불손표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연구의 중심이 되어왔던 공손 연구와 달리 불손 연구는 ‘주변적인 것’으로 공손의 일탈 현상 및 화용적 실패로 기술되어 단지 불손의 잠재성을 암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²⁾ 불손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불손 이론에 관한 연구

Culpeper와 Bousfield는 공손 개념과 분류하여 불손의 개념과 유형을 명시하였다. Culpeper(1996)는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의 체면 유지 개념을 체면 공격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

1) 李元勝, 〈漢語中不禮貌言語行爲的順應性研究〉, 《現代語文》 11, 2006, 48쪽.

2) 김태나, 〈한국어 발화에서의 불손 실현 -Brown과 Levinson(1987)의 불손전략을 바탕으로-〉, 《외국어교육》 18(3), 2011, 440쪽.

는 공손 전략과 상반되는 불손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Bousfield(2008) 역시 Culpeper(1996, 2005)의 불손 전략을 보완한 불손이론을 전개해나갔다.

둘째, 불손 이론을 심화 발전시키거나 구체적인 언어에 적용한 연구

불손은 범언어적인 현상으로 여러 언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이영래(2006), 정금미(2011), 김태나(2011, 2012) 등이 있다. 이는 모두 한국어와 영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이 중 정금미(2011)는 일상의 담화분석을 통해 공손과 불손의 의도적 대화실현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불손 실현에서 ‘위협’에 나타나는 청자의 반응에 대한 화용론적 유형을 실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공·불손의 유형별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의도성이 있는 전략적 불손형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중국어 불손표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불손 이론 중심의 연구, 인지·화용론적 연구, 불손실현 언어표지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손 이론에 대한 연구로는 李元勝(2006), 楊子·於國棟(2007), 張大毛(2009), 王紅斌(2011), 王小麗(2012), 謝潔(2012), 龔雙萍(2009), 嚴敏芬(2012) 등이 있다. 이 중 李元勝(2006)과 楊子·於國棟(2007)에서는 Verschueren의 ‘순응론(順應論)’을 중심으로 전략적 불손과 비전략적 불손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王紅斌(2011)과 謝潔(2012)에서는 불손 이론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외의 불손 관련 연구를 개괄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龔雙萍(2009)와 嚴敏芬(2012)에서는 각각 Bousfield와 Culpeper의 불손이론에 관한 저서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馬玉鵬(2013), 陳倩(2013), 吳梅紅(2013), 毛延生(2014)에서는 화용 또는 인지적 관점에서 불손표현의 특징 및 기능을 논의하였다. 불손 실현에 관여하는 언어 요인, 즉 언어 형식에 대한 연구로는 丁崇明(2001), 張寅男(2007), 何震亞(2008), 楊玉玲(2013) 등이 있다. 丁崇明(2001)에서는 단어 반복(疊連)의 불손 의미를 분석하였다. 불손 각도에서 ‘疊連’ 형식의 구조 및 화용 특징을 기술하였다. 張寅男(2007)과 何震亞(2008)는 반어문과 공·불손 관계를 논의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불손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구체적인 실현 양상 및 특징을 분석한 연구도 있으나, 불손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불손표지에 대한 논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의 경우 불손이론을 중국어에 적용한 논의조차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국어 학습자가 목표어에 대한 무지로 인해 범할 수 있는 화용적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불손표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어 학습자에게 불손표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의도성이 있는 전략적 불손 형태가 아닌 중국어에 대한 지식의 부족, 즉 무지로 인한 불손 형식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불손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중국어 불손표현의 개념을 살펴본다. 또 구체적인 불손 실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불손 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어 공손과 관련하여 어휘, 통사, 화용 등 다양한 각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불손은 공손과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손을 실현하는 언어장치에 대한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공손표현과 불손표현에 관한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불손 표현 형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불손 표현

1. 불손 의미

Culpeper와 Bousfield는 불손을 공손의 개념과 분류하여 불손의 개념과 유형을 규명하였다. Culpeper(1996)³⁾는 Brown & Levinson(1987)의 체면 유지 개념을 체면 공격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공손 전략과 상반되는 5가지 불손 전략을 제시하였다. 불손 전략은 다음과 같다.

3) 불손은 체면을 공격하는데 계획된 의사소통 전략과 사회적 갈등과 비조화를 야기하는 것.

- ① 명시적 표현의 불손: 위협과 순응을 위한 강요표현
- ② 적극적 불손: 청자에게 적극적으로 체면을 위협⁴⁾
- ③ 소극적 불손: 청자에게 소극적으로 체면을 위협⁵⁾
- ④ 간접표현, 거짓 공손: 불성실한 조소, 조롱, 비꼬기, 잘난 체
- ⑤ 공손을 나타내지 않기, 침묵

Bousfield(2008) 역시 Culpeper(1996, 2005)의 불손 전략을 보완한 불손 이론을 전개해나갔다. ‘불손(impoliteness)’은 ‘무례함(rudeness)’의 유의어이다. impolite는 rude보다 화자의 의도된 감정이 보다 잘 나타난 어휘이며 rude는 단지 개인적 특성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면을 직접 묘사하는 어휘이다(Culpeper 2009). Bousfield(2008)는 “불손이란 공손의 반대의 개념으로 화자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으로 가해진 저돌적인 구두의 체면위협 행위”라 정의하였다.⁶⁾ 이에 불손은 공손의 상반된 개념으로 청자의 체면을 살리지 않고 위협하는 의사소통 전략이다.

2. 불손 표현

1) 공손표현 사용하지 않기

공손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비의도적 혹은 의도적 불손으로 받아들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나아가 대화 목적을 달성하

- 4) 적극적 불손전략: 적극적 체면 욕구를 손상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일치, 협력관계 강조와 대립되어 나타난다. 이에 존중하지 않음과 관심 없음 전달하기, 비동질적 표지어로써 동질 그룹 구성원임을 거부하기, 관점 의견 태도 지식에 공감하지 않기, 욕구를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기, 반작용의 결여하기 등.
- 5) 소극적 불손전략: 소극적 체면 욕구를 손상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접화 및 가정회피, 청자를 구속하지 않으려는 의도 표명과 대립된다. 관례적 간접화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선택권을 제시하지 않고 강요하기, 공간 침해하기, 울타리어 사용하지 않기, 조동사 사용하지 않기, 존경 표지어 사용하지 않기, ‘I, You’ 인칭화 하기, 수동태와 조건절 사용하지 않기 등.
- 6) 고의성과 의도성이 있는 불손 전략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공손과 불손은 상반되는 개념이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공손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불손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요청 화행 시 의문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공손한 표현 방법이나 의문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손한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비공손이 불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공손의 개념만으로 공·불손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불손의 잠재성을 시사한다.

- (1) 我们回头商量, 好吗? 우리 다음에 상의하는 게 어때요?
 (1)' 我们回头商量。우리 다음에 상의해요.

위 예문을 보면 ‘다음에 상의하자’는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의문문 형식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이나 허락을 구하는 어기가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공손한 표현이 된다. 그러나 무조건 의문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으로 간주할 수 없다. 담화 상황의 화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대화자 상호간의 사회적 힘 또는 거리에 따라 불손 정도가 결정된다. 친구나 형제 같은 수평관계, 또는 친근한 대상에게 의문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불손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직관계의 경우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의문문을 사용하지 않고 강경한 어기의 청원문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2) 也许你弄错了。아마도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3) 您有点保守。당신은 좀 보수적이에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할 때는 상대방의 체면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언어적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也许’와 같은 개연성 부사나 ‘有点’과 같은 어기부사를 첨가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어감을 완화시

킬 수 있다.

- (4) 您先坐一坐。우선 좀 앉으세요.
- (5) 您来一下! 한번 와보세요!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을 하는 화행에서 지시나 명령의 어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坐一坐’와 같은 동사중첩 형식과 ‘一下’와 같은 ‘소량’ 의미 표현을 첨가할 수 있다. 동작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음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청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 (6) 我们回头商量吧。우리 다음에 상의합시다.
- (7) 出去吧。나가세요.

어기조사의 사용 역시 언어의 완곡, 공손에 관여하는 공손표지의 하나다. 특히 ‘吧’의 사용 유무에 따라 어기의 강경 정도가 달라진다. 위 예문에서 ‘吧’를 사용하지 않으면 요구나 명령의 어기가 강조되고, ‘吧’를 사용하면 청유나 부탁의 어기가 강조된다.

- (8) 你去休息。가서 쉬어.
- (8)' 你应当去休息。너는 가서 쉬어야해.

조동사 사용은 공손 의미를 나타내는 공손 기능을 한다. 위 예문을 보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청원문에 조동사 ‘应当’을 사용하자 화자의 요구가 객관성을 띠게 되고, 이로써 지시나 명령의 어기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7) 오현주, <중국어 조동사 활용을 통한 공손표현 고찰>, 《中國語文學》 70, 2015, 209쪽.

2) 청원문의 불손 표지 ‘少’, ‘給我’

- (9) 少管闲事! 쓸데없는 일에 참견 마!
- (10) 少废话, 快给钱!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돈 줘!
- (11) 你给我进去! 썩 들어가!

‘少’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동작 동사의 앞에 쓰여 제지를 나타내며, 공손하지 못한 어기를 갖는다. ‘給我’는 청원문에서 실제의 뜻은 없고, 공손하지 못한 어감을 갖는다.⁸⁾

- (12) 鲁 贵 (向大海): 你自己觉得挺不错, 你到家不到两天, 就闹这么大的乱子, 我没有说你, 你还要打我么? 你给我滚!
너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때리겠다고?
썩 꺼져버려!
- (13) 鲁大海 (向鲁贵): 你小心点. 你少惹我的火.
당신 조심해. 화 돋우지 말고
- (14) 鲁侍萍 (向鲁贵): 你别不要脸, 你少说话!
당신도 그만 뻔뻔하게 굴어요. 그만해요!
(曹禺, 《雷雨》)

위 대화는 鲁家 가족이 다투는 상황의 대화 내용이다. 예(12)는 의붓아버지 鲁贵가 의붓아들인 大海에게 ‘給我’를 사용하였고, 예(13)은 大海가 鲁贵에게 ‘少’를 사용하였으며, 예(14)는 엄마 侍萍이 남편에게 ‘少’형식을 사용하였다. ‘少’, ‘給我’를 사용함으로써 명령의 어기가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제지나 금지를 나타내는 강경한 표현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불손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은 직설적이고 강압적일 뿐 아니라 훈계하거나 다그치는 어감

8) 김현철 외 역, 《실용현대한어어법(下)》, 송산출판사, 2005, 463쪽.

이 더해져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형식이다.⁹⁾ 이러한 형식은 대부분 상위자가 하위자를 훈계할 때 사용된다. 강력한 훈계 또는 분노의 표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목적을 지닌 의도적 불손전략에 사용될 수 있다.

3) 반어문의 불손 의미

- (15) 我不是女人。(평서문)
 请不要误认为我是女人。(청유문)
 我不是女人哪!(감탄문)
 我是女人么?(반어문)

위 예문은 문형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명제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중 반어문 형식이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가장 불손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¹⁰⁾ 의미 내용을 반대로 표현하여 간접적으로 의도를 전달하는 반의적 표현은 가장 간접적인 표현 방식이나 어감상, 의미상 가장 불손한 표현으로, 특히 목표어에 미숙한 제2언어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지적된다.¹¹⁾

- (16) 白芸攀词夺理地说：“什么茶叶、茶叶的？就是墨水汤嘛。” 眼看冯家丽的脸色像猪肝一样，郑志文再也按捺不住了，大声地对白芸说：“你到底有完没有？今天不是第一次喝这个汤，明摆着鸡蛋里挑骨头，不喜欢喝就别喝！白芸이 “차는 무슨 차야? 그냥 검은 탕이구만.”이라고 억지를 쓰며 말한다. 冯家丽的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본 郑志文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한다. “너 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오늘 처

9) 오현주, <중국어 문장 범주 완곡 표현 연구>, 《中国语文学》 56, 2010, 454쪽.

10) 반어문과 불손의 관계를 판단할 때는 ‘문형(句型), 어기(語氣), 언어 환경(語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 정금미, <대화에서의 공손과 불손전략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0쪽.

음 마시는 것도 아니면서 공연히 트집 잡는 거잖아. 마시기 싫으면 마시지마.”

(孙博, 《小留学生泪洒异国》)

사촌 자매끼리의 대화 내용이다. 목적어 앞에 ‘什么’를 쓰는 이러한 반어문은 어기가 아주 강하다. 불만이나 반대, 책망의 어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동등관계라 하더라도 이러한 반어표현은 불손 의미가 있다. 평서문 형태의 ‘不是茶叶’로 바꾸는 것이 상대방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는 표현이 된다.

(17) “家丽啊, 在外一定要小心, 不要上坏人的当, 听到了吗?”

“爸, 这世界上哪儿有这么多坏人?”

“家丽야. 밖에 나가면 나쁜 사람에게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알겠니?”, “아빠,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많아요?”

(孙博, 《小留学生泪洒异国》)

부녀간의 대화 내용이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경계심을 가지라고 일깨워준 것인데, 오히려 딸은 아버지의 의견을 반박함으로써 아버지의 체면을 위협했다. 앞서 말했듯이 반어문은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불손 의미를 지닌다. 반어문이 불손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반어표현이 모두 불손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¹²⁾ 아래 예문을 보자.

(18) (十年前结婚时, 两人回了一趟山西老家, 奶奶把一枚祖传的戒指送给了文娟。以后春节回去, 奶奶便盯她的肚子。)

(10년 전 결혼하고 부부는 산시 고향에 갔었는데, 할머니가 대대로 전해지는 반지를 于文娟에게 주었다. 이후 춘절에 갔을 때 할머니는 그

12) 張寅男, 〈反問程度與禮貌程度-漢語反問句系統重新考察〉, 《現代語文》 9, 2007, 45쪽. 반어문이 나타내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부정 의미: 불만/책망, 반대/반박/변명, 경시/풍자

중성 의미: 건의/제지, 조롱/의외/의혹

긍정 의미: 겸손, 위로/강개/칭찬

너의 배를 뚫어저라 쳐다본다)

严守一：“她一农村老太太，懂得什么？”

“시골 할머니가 뭘 아시겠어?”

于文娟：“答应过的，不可失信于人。”

“약속했었어. 약속을 저버릴 순 없어.”

(刘震云, 《手机》)

(19) “你的皮肤还是那么白呀，也和以前一样漂亮，天生丽质。”

“我有自知之明，40岁的女人，能漂亮到哪儿？你看我，没几条裙子、裤子穿得上的，眼看着腰身一天天胖起来。哪像你？”

“너는 피부가 아직도 이렇게 희구나. 여전히 예쁘다. 타고난 미모야.”

“마흔 된 여자가 예뻐봐야 얼마나 예쁠라고? 허리 살도 갈수록 붙어나 맞는 옷도 몇 개 안 돼. 어디 너 같을라고?”

(孙博, 《小留学生泪洒异国》)

예(18)은 부부의 대화로, 반어 표현은 위로의 뜻을 나타낸다. 예(19)는 사촌자매의 대화 내용으로, 사용된 반어문은 겸손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 대화 상대와 무관하게 긍정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반어문의 불손 실현은 구체적인 담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반어문은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이다. 반어 형식과 의미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어 교재에서 반어문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20) 刘伟：可这样房间好像小了一点儿。

이 방은 좀 작은 거 같아.

王平：要那么大的地方有什么用？你想在家里开舞会吗？

그렇게 넓은 공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집에서 무도회라도 열라고?

※ ‘有什么用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반어문으로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어구어3》 5과)

(21) 田中：你不是学英语的吗？ 영어 전공 아니었어?

小雨：哪儿啊，我是学法语的。 아니야. 나는 불어 전공이야.

※ ‘不是……吗?’로 된 반문문은 ‘긍정’을 나타내며, 강조의 뜻을 띠고 있다.

(《신공략중국어 초급편》 12과)

(22) 张 林：这学期你选了几门专业课？

이번 학기에 몇 개의 전공 과 목을 수강 신청했니?

朴民秀：我选了六门。 여섯 과목을 신청했어.

张 林：这么多啊？ 이렇게 많이?

朴民秀：多什么啊！大家差不多都选了六门课。

많기는 뭘! 다들 거의 여섯 과목씩은 신청했을 거야.

※ 반어를 나타내는 什么是 긍정을 나타내는 의문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스마트중국어3》 1과)

본문 내용에 언급되는 반어 형식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회화 교재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설명이 다소 간략해 보이며, 반어문의 불손 의미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문을 제시하였으나, 단편적인 예문 제시만으로는 반어 표현의 다양한 의미나 기능을 이해하기 힘들다. 구체적인 언어 환경 속에서 그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교재의 대화는 대부분 친구 사이의 대화라 불손 의미가 강조되지 않지만, 대화자 상호 관계에 따라 불손표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有什么用’과 ‘형용사+什么’ 형식은 반박, 불만, 반대, 책망의 어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

4) 단어 반복(詞語疊連)

단어 반복은 ‘양의 증가’ 방식을 통해 그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¹³⁾

13) 丁崇明, 《論詞語疊連式不禮貌語言》, 《語言文字應用》 3, 2001, 67쪽.

(23) 请问您, 有没有42码的凉鞋? 42치수의 샌들 있어요?

没有没有。없어요 없어.

(24) 请问, 王大夫在不在? 왕 선생님 계십니까?

不在不在。안계세요 안계세요.

어기는 언어의 공손성 및 불손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위 예문에서 부정 의미 단어를 반복하여 상대방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부정의 의미가 한층 더 강조되고, 성가시고 싫은 감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상대방의 기대심리에 위배되는 대답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이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불손 의미를 나타낸다.¹⁴⁾

(25) 快去做作业去! 얼른 숙제하러 가!

好好好。알았어 알았다고.

(26) 妈妈: 你都叁十好几的人了, 找个合适的快点结婚吧.

너도 서른이 넘었으니 어서 적당한 사람 찾아 결혼해.

女儿: 结婚结婚结婚, 一张口就是结婚, 烦死了.

결혼, 결혼, 결혼, 입만 열면 결혼 타령이야. 지겨워 죽겠어.

예(25)는 ‘好’를 거듭 반복하여 대답하였다. 표면적으로는 긍정의 의미가 강조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귀찮고 성가시다’는 의미로, 상대방에 대한 불만, 원망 등의 부정적 감정이 강조되었다. 예(26) 역시 단어의 반복으로 인해 결혼이라는 화제를 꺼낸 엄마에 대한 원망, 불만이 강조되고 있다.

(27) 你要到哪里去? 어디 가려고?

学校学校。학교 학교.

(28) 这些是谁的自行车? 이걸 다 누구 자전거야?

我们的我们的。우리 것이야 우리 것.

14) 반대로 긍정의 반복 형태일 경우, “有有有”, “在在在”로 대답하게 되면 기대심리에 부응하는 상황이 됨으로써 불손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단어 반복을 통해 내재된 불만과 짜증이 표출되기도 한다.

- (29) 看不清看不清, 你的这些字。
잘 안보여 잘 안보여, 네가 쓴 글씨들이.
- (30) 不好看不好看, 你是怎么挑的。
별로야 별로. 너 어떻게 고른 거야.

도치 형태의 문장에서 단어를 반복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 또는 원망의 감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단어반복 형식이 모두 불손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31) 去去去! 我正忙着呢。¹⁵⁾
가! 가! 저리가! 지금 바빠.
- (32) 去去去。小王, 你也应该去试一试。
가자 가자 가자. 왕야, 너도 꼭 가봐야지.
- (33) 你去不去? 갈 거야?
去去去。가, 가, 갈 거야.

예(31)은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어기로 분명한 불손 의미가 있다. 예(32)는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권유하는 청원문에, 예(33)은 긍정의 대답에 쓰여 불손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이 단어 반복의 불손 의미는 단어 의미, 언어 환경, 교제 쌍방의 심리 요인 등과 관련이 있다.

3. 문화차이와 불손 표현

불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불손 형식은 해당 사회 및 문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을 사용할 때 문화나 언어 차이로 인해 화

15) 단음절 동사 반복 형식의 ‘去去去’는 명령이나 금지, 재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다급하고 무례하게 어떤 일을 하도록 재촉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용적인 오류를 범하기 쉽다. 화용적 오류는 대화 상황에서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문법 규칙의 위배는 비문법성의 결과로 그 언어를 모르는 소치로 평가되지만 대화 격률들의 위배는 화자의 어떤 ‘의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의사소통에서 더 의미 있는 통제 원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손 원리와 같은 대화 격률들은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비의도적 혹은 의도적 불손으로 간주되어 의사소통의 장애가 되고 대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헌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의사불통으로, 외국인이나 어린이의 사회화용적 실패의 한 유형이 된다.”¹⁶⁾

(34) 婆婆：媳妇啊，来，喝点汤。애야, 탕 좀 마셔봐라.

爱玛：我不喝，你们喝吧。안 먹을래요, 드세요.

婆婆：为了孩子你还得喝呀。喝两口。

아가를 위해서라도 먹어야지. 조금만 마셔보렴.

爱玛：没完没了让我喝汤，我不喝。

끝도 없이 마시라고 하는데, 안 먹어요.

婆婆：这专门是为你做的呀。你为什么不喝呀？

너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건데, 왜 안 먹어?

爱玛：我不喝。안 먹는다고요.

위 예문은 영화 『土婆婆 PK 洋媳妇』에서 영국인 며느리 爱玛와 시어머니 간의 대화 내용이다. 산후조리와 모유수유를 하는 며느리를 위해 시어머니가 특별한 보양 음식을 만들었는데, 며느리는 접해 보지 않은 음식이라 거부감을 표시하며 먹지 않는다. 계속 권하는 시어머니에게 ‘我不喝’(안 먹는다)라는 강경한 어기로 거부 의사와 불만의 감정을 나타낸다. 고부 사이임을 감안하면 “我不想喝。”(마시고 싶지 않아요)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한 동서양의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아래 대화는 《土婆婆PK洋媳妇》의 한 장면으로, 魏国의 후배인 胡一迪

16) 김태나, <한국어 발화 무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쪽.

와 魏国의 영국인 아내 爱玛가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는 상황이다.

(35) (胡一迪가 爱玛를 ‘嫂子’라 부르자)

爱 玛：请叫我爱玛。‘아이마’라 불러주세요.

胡一迪：(笑着说) 好, 爱玛嫂子。네, 아이마 형수님.

爱 玛：是爱玛。아이마 예요.

胡一迪：是, 爱玛嫂子。네, 아이마 형수님.

爱 玛：(再次强调) 是爱玛。아이마 라고요.

胡一迪：是, 爱玛, 嫂子。네, 아이마, 형수님.

‘嫂子’ 호칭에 대해 영국인 爱玛와 중국인 胡一迪의 문화적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선배의 부인에게 ‘嫂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중국의 호칭 문화를 모르는 爱玛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嫂子’라 부르는 胡一迪가 무례하다고 느낀다. 반면, 胡一迪는 선배 부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긴다.

(36) 爱玛：婆婆, 按照中国习惯应该叫你一声妈妈。

시어머니, 중국관습에 따라 어머니라 했어야 했는데.....

婆婆：媳妇, 你是外国人, 没必要全学。

애야, 너는 외국인이잖아. 모든 걸 다 배울 필요는 없단다.

爱玛：妈妈, 亲爱的妈妈。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土婆婆PK洋媳妇》의 마지막 장면의 대화 내용이다. 사회, 문화, 관념 등의 차이로 인한 고부 갈등을 극복한 뒤 爱玛는 시어머니를 ‘婆婆’(시어머니)가 아닌 ‘妈妈’(어머니)로 부르게 된다.

이와 같이 체면이나 공손, 불손은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그 판단 기준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중국과 영국, 나아가 동양과 서양은 문화권에 따라 공손 개념과 원리가 다르다. 보편적인 기준으로 공손과 불손을 판단할 수 없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로 불손을 실현하는 불손 표지를 살펴보았다. 공손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 청원문의 ‘少’와 ‘給我’, 반어문의 불손 의미, 단어 반복의 불손 기능을 분석하였다. 불손한 의미를 나타내거나 불손한 기능을 하는 표현 형식에 대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 불손한 표현은 의도성이 있는 불손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급 단계에서 중·고급 단계로 수준이 올라갈수록 의도적으로 불손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대화 전략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은 논의하지 못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불손 전략에 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가 중국어 불손표현에 대한 학문적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 불손표현에 대한 학문적 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또한, 중국어 교육에 활용되어 불손표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로써 의사소통 및 화용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References>

1. Bousfield, D. *Impoliteness in interac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8.
2. Bousfield, D. & Culpeper, J. “Impoliteness: Eclecticism and Diaspora.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Edition.” *Journal of Politeness Research* 4, (2008).
3. Culpeper, J. “Towards an anatomy of im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25, (1996).
4. Ding Chongming. “The misbehavior words in form of reiterative”.

- Applied Linguistics* 3, (2001).
5. He Zhenya. "A Discussion of the Manners Stipulationism of Rhetorical Questions". *Journal of Suzhou College of Education* 25(1), (2008).
 6. Jung Kummi. "(The) Pragmatic Implication of Politeness and Impoliteness Strategies in Convers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te Thesis, (2011).
 7. Kim Taena.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impoliteness in Korean speech act: Brown and Levinson's (1987) impoliteness strategies". *Foreign languages education(Society of korean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8(3), (2011).
 8. Kim Taena. "study of impoliteness in the Korean utteranc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octorate Thesis, (2012).
 9. Lee Ikhwan, Kwon Kyungwon. *Pragmatics*. Seoul: Hansin Munhwasa, 1992.
 10. Lee Yeongrae. "(Im)polit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Verbal Interaction".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3(1), (2006).
 11. Li Yuansheng. "Chinese in the impolite words the compliance of research". *Modern Chinese* 11, 2006.
 12. Mao Yansheng. "A Pragmatic Study on Impolite Discourses in Chinese". *Language Teaching and Linguistic Studies* 2, (2014).
 13. Oh Hyunju. "The analysis of euphemism used in Chinese sentence structur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iterary Society of Yeong Nam)* 56, (2010).
 14. Oh Hyunju. "A Study on the Use of Auxiliary Verbs in Chinese Polite Expressions".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iterary Society of Yeong Nam)* 70, (2015).

15. Xie Jie. "Analysis of politeness research approach". *Journal of Huanggang Normal University* 32(4), (2012).
16. Yang Yuling. "The Types of Chinese Word Duplication and Their Functions". *Chinese Language Learning* 6, (2013).
17. Yang Zi, Yu Guodong. "On Verbal Impoliteness in Chinese Language – From the Perspective of Adaptation". *Foreign Languages in China* 18, (2007).
18. Zhang Damao.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impolite speech". *Journal of Southwest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 (2009).
19. Zhang Yinnan. "The degree of rhetorical questions and politeness: a re examination of Chinese rhetorical questions". *Modern Chinese* 9, (2007).

<참고문헌>

1. Bousfield, D. *Impoliteness in interac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8.
2. Bousfield, D. & Culpeper, J. "Impoliteness: Eclecticism and Diaspora.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Edition." *Journal of Politeness Research* 4, (2008).
3. Culpeper, J. "Towards an anatomy of im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25, (1996).
4. 丁崇明, 〈論詞語疊連式不禮貌語言〉, 《語言文字應用》 3, 2001.
5. 何震亞, 〈談反問句的禮貌規約性〉, 《蘇州教育學院學報》 25(1), 2008.
6. 정금미, 《대화에서의 공손과 불손전략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7. 김태나, 〈한국어 발화에서의 불손 실현-Brown과 Levinson(1987)의 불손전략을 바탕으로-〉, 《외국어교육》 18(3), 2011.
8. 김태나, 〈한국어 발화 무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 이익환·권경원 역, 《화용론》, 한신문화사, 1992.
10. 이영래, 〈언어행위에서의 (반)공손과 대인관계〉, 《한국언어문화학》 3(1), 2006.
11. 李元勝, 〈漢語中不禮貌言語行爲的順應性研究〉, 《現代語文》 11, 2006.
12. 毛延生, 〈漢語不禮貌話語的語用研究〉, 《語言教師與研究》 2, 2014.
13. 오현주, 〈중국어 문장 범주 완곡 표현 연구〉, 《중국어문학》 56, 2010.
14. 오현주, 〈중국어 조동사 활용을 통한 공손표현 고찰〉, 《중국어문학》 70, 2015.
15. 謝 潔, 〈不禮貌研究路向分析〉, 《黃岡師範學院學報》 32(4), 2012.
16. 楊玉玲, 〈漢語詞語疊連的類型及其功能〉, 《漢語學習》 6, 2013.
17. 楊 子·於國棟, 〈漢語言語不禮貌的順應性研究〉, 《中國外語》 18, 2007.
18. 張大毛, 〈不禮貌言語的界定和分類〉,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1, 2009.
19. 張寅男, 〈反問程度與禮貌程度-漢語反問句系統重新考察〉, 《現代語文》 9, 2007.

<Abstract >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cepts and types of impoliteness, analyzed the specific implementation aspects of impoliteness in Chinese, and presented markers of impoliteness in Chine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impoliteness expressions to reduce

pragmatic errors that may be made by Chinese language learners due to unawareness of Chinese language. Therefore, the discussion is developed by focusing on impoliteness markers representing impoliteness.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four forms of impoliteness.

First, not using politeness expressions

Second, form of impoliteness markers ‘少’, ‘給我’ in plea letters

Third, impolite meaning of ironic sentences

Fourth, impoliteness of word repetitions

With the goal of providing information on impoliteness expressions for Chinese language learners, this study discussed forms of impoliteness due to lack of knowledge or ignorance of Chinese language instead of strategic impoliteness with intention. All forms with impolite meaning or functions were intended to be covered as much as possible, but there are many limitations that will be complemented in the future.

Key Words : 현대중국어(Modern Chinese), 불손표지(Impoliteness Marker), 불손의미(meaning of Impoliteness), 불손표현(Impoliteness Expressions)

